

1.5km 떨어진 곳서 희생자 발견... 시신 유실 우려가 현실로

구명조끼 입은 여성 시신 방제작업 하던 어민이 수습 가거도·추자도 까지 수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에서 세월호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가 발견됐다. 정부는 사고 초기 미흡한 대응으로 희생자를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어 그동안 우려됐던 시신 유실 방지 대책도 미흡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앞 200m 해상에서 기름 방제작업에 나선던 어민이 세월호 탑승객으로 보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 시신을 수습, 민·관·군 합동구조팀

에 인계했다.

동거차도 주민 이모(48)씨는 방제작업에 나섰다가 거센 물살에 흔들리는 오일펜스를 바로 잡기 위해 닻을 들어올렸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희생자가 걸려 올라와 합동구조팀에 인계했다.

동거차도는 사고해역에서 1.5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세월호에서 나온 기름으로 미역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이씨는 “내가 줄을 잘랐으면 이 시신은 영원히 가족을 찾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몸이 움찔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희생자가 발견, 실종자 가족들의 시신 유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야에 희생자 시신 및 유류품 유실 방지를 위한 민·관·군 특별대책반을 꾸리는데, 희생자 시신 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표류부이(2기) 투하 시기는 29일 이뤄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지점을 중심을 반경 5마일을 대상으로 3단계로 그물망을 설치, 구조·수색작업과 동시에 시신 유실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종자 가족 우려를 덜어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많다.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한 3단계 포위망 중 첫번째 원형 포위망도 어민들이 기존에 설치해놓은 5km 폭의 닻자망 그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맹골수도 주변 8km와 15km 되는 지점에 상륙이 어선을 동원하는 한편,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은 사고해역 외곽 신안 가거도와 추자도 해역(40~60km)을 대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침몰 15일째인 지난 30일 진도군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해역 수색작업 뒤 귀환하는 해경소속 선박을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부분 단원고 남학생들... 필사의 탈출 몸부림 흔적

5층 로비에 상당수 희생자

합동구조팀은 지난 30일 새벽 세월호 5층 로비에서 희생자 대부분을 발견했다. 주로 단원고 남학생들로 추정된다.

이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4층이 아닌 5층 로비에서 발견된 것은 끝까지 탈출하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4층 중앙과 선수, 5층 로비를 위주로 수색할 예정”이라며 “문이 열리는 객실을 우선 수색한 뒤 5월 초까지는 문을 개방하지 못한 곳과 공용 구역 등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날까지는 잔류 추정 객실(객실)을 살펴보고,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소조 때인 6~7일 전후까지는 미개방 객실 수색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또 5월 중순까지는 그 외에 추가로 실종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우선 순위가 밀린 공간도 수색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2시께 세월호 4층과 5층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4층 선수 부분에서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4명을 비롯해 5층 로비에서 여성 희생자 1명을 추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후 8시 현재까지 탑승객 476명 중

구조자 174명, 실종 90명, 사망자 212명으로 확인됐다.

5층에서 시신이 많이 발견된 것은 학생들이 배 안에 물이 차오르자 탈출을 위해 5층 로비까지 필사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로비 바로 옆에는 4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고, 희생자 대부분이 남학생이어서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남학생들이 힘겹게 계단을 타고 5층까지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번의 생존기회 있었는데... 탈출 방송 안해 날렸다

당시 객실 내부 동영상 공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객실 내부 동영상 공개됐다.

JTBC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탑승했던 희생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안산 단원고 고 박예슬 양의 아버지 박종범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아이들의 편지다.

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 9시37분부터 담겨 있다. 사고가 난지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지난 때다. 이때는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한 상태였다. 안타깝게도 그 시간까지도 아이들은 사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여학생들이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선체 안에서 벽을 바닥 삼아 누워있다. 배가 견잡을 수 없는 지역이 이르러 세월호와 진도 관제센터의 교신이 끝난 시점인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밝다.

이 때 구조헬기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헬리콥터가 와”, “애들이 원래는 이 건물에 되게 많이 기술했다”, “힘들어. 살려줘”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천진난만한 모습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흘러나오는 선내 방송도 들린다. “현재 승객분들께서는 구명동의에 끈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자 “엄마 보고 싶어”라고 울먹이는가 하면 “살아서 보자”라며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겨내고자 서로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은 9시41분28초에 끝났다. 같은 시각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했다. 하지만 아이들엔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 3번의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기다리라’는 안내방송과 선장과 선원이 탈출하고 없는 배 안에서 구조기회를 잃고 말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만 되풀이했다. 8시52분이후 15분30초동안 확인된 방송만 11차례나 됐다. 이런 간격이라면 침몰 직전까지 약 30번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공개한 박종범 씨는 “이 영상을 꼭 공개해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그렇게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천진한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위로한다. 역장이 무너진다”, “최근 2주간 흘린 눈물이 그 전 3년간 흘린 눈물보다 많은 것 같다”, “통제에 따라라’는 문자를 후회하며 눈물 짓는다” 등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재판부의 이례적 지시... “음주운전 안한다는 각서 자녀들에게 보내고 제출하라”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자녀들에게 보내고 재판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눈길.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지난 3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피고인인) 음주 운전을 해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할 것인가”고 물은 뒤 “딸 자식 5명이 슬퍼할 것 같다”고 하자 자녀들에게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보내고 발송 증명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하다 적발된 지역 경찰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김지을기자 dok2000@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보이로

단비플라워

죽하와판3단 / 근조와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